

# 성인 출소자의 아동기 외상과 가족기능성과의 관계에서 분노표현방식의 매개효과검증

## The Mediating Effect of Ex-offenders, Anger Expression between the in Childhood Trauma and Family Functioning

이아름, 김지윤, 이동훈

성균관대학교 교육학과 외상심리건강연구소

A-Reum Lee(nissi414@naver.com), Ji-Yun Kim(jypeace2627@naver.com),  
Dong-Hun Lee(dhlawrence05@gmail.com)

### 요약

본 연구는 출소자를 대상으로 아동기 외상과 가족기능성과의 관계를 분노표현방식이 매개하는지 알아보  
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에서 주거지원을 받고 있는 출소자 500명을 대상으로 자료  
수집을 하여 최종 400명의 자료로 구조모형분석을 실시하였다. 분석 결과, 첫째, 아동기 외상은 가족기능과  
부적상관을 나타냈고, 아동기 외상과 기능적 분노표현방식인 분노조절은 부적상관을 나타낸 반면, 역기능  
적 분노표현방식의 하위요인인 분노표출, 분노억제와는 정적상관을 나타냈다. 또한 기능적 분노표현방식인  
분노조절은 가족기능성과 정적 상관을 나타낸 반면, 역기능적 분노표현방식인 분노표출, 분노억제는 가족  
기능성과 부적 상관을 나타냈다. 둘째, 아동기 외상경험과 가족기능과의 관계에서 기능적 분노표현방식인  
분노조절과 역기능적 분노표현방식인 분노표출, 분노억제의 매개효과를 검증한 결과, 분노조절과 분노표  
출, 분노억제가 아동기 외상경험과 가족기능과의 관계를 부분매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는 아  
동기 외상경험과 가족기능과의 관계에서 분노조절은 가족기능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반면, 분노표출  
및 분노억제는 가족기능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연구결과를 토대로 논의 및 시사점  
이 제시되었다.

■ 중심어 : | 출소자 | 아동기 외상 | 분노표현방식(분노조절, 분노표출, 분노억제) | 가족기능성 |

###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confirm the characteristics of released prisoners through demographic and sociological variables and to investigate the effects of childhood traumatic experiences on family functioning and the mediating effects of anger expression method. For this purpose, Korea Rehabilitation Agency were selected and finally 400 released prisoners were analyzed. As a result, it appeared that anger expression method played a role of mediating variable when childhood trauma experience affects family functioning. Childhood trauma experience not only directly affects family functioning, but indirectly affects family functioning through anger expression method and the anger expression method played a role as partial mediating variable. Based on the results of this study, we emphasized the need for intervention and education for anger expression method in psychological counseling interventions to improve family functioning as a way to suppress the second offense of released prisoners with childhood abuse experience.

■ keyword : | Released Prisoner | Childhood Trauma | Anger Expression(anger-control, anger-out, anger-in) | Family Functioning |

## I. 서론

2007년부터 2012년까지 출소자의 재범역률을 살펴보면, 2007년 22.3%에서 2011년 21.4%에 이르기까지 22% 내외를 계속 유지하다가 2012년에는 24.8%로 증가하였다[1]. 재범율의 증가는 잠재적으로 여러 가지 사회문제를 야기시킨다는 점에서 심각한 위험요소가 될 수 있다. 그러므로 출소자의 사회복귀에 대한 실제적인 대책이 강구될 필요가 있다.

재범방지에 대한 대표적인 이론 중의 하나인 사회유대이론(social bonding theory)에서는 가족, 친구, 지역 사회와의 강한 유대가 범죄를 억제하는 효과를 가진다고 주장한다[2]. 특히 가족과의 유대는 재범율을 낮추는데 큰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3][4] 가족과의 유대가 강한 출소자들의 재범률은 낮았고, 사회복귀는 보다 성공적인 것으로 나타났다[5][6]. 실제로 남성 출소자 401명을 대상으로 3년 동안의 재범률을 조사한 결과, 가족의 정서적 지지와 지원은 출소자가 자신의 행동을 조절할 수 있게 하고, 출소자의 정체성을 변화시켜 재범을 억제시키는 것으로 밝혀졌다[7]. 또한 어린 자녀와 함께 사는 것으로 확인된 27명의 출소자 중 6명(22%)만이 9개월 이내에 다시 교도소에 수감된 것과 비교해 자녀와 함께 살지 않는 44명의 출소자 중 30명(68%)이 교도소에 수감된 것으로 보고된 것[8]으로 나타났으며, 자녀와의 관계를 '최상'이라고 응답한 출소자들이 그렇지 않은 부모들에 비해 출소 6개월 이후 재수감되는 비율이 상대적으로 낮은 것[9]으로 확인되었다. 이처럼 선행연구를 통해 가족과의 강한 유대감과 지지는 출소 후 재사회화 과정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며, 재범의 가능성을 낮출 수 있는 요인임을 알 수 있는데[7][10][11], 혈연 중심의 한국 사회에서 '가족'이 갖는 사회적·문화적 가치를 고려하면 그 중요성은 더욱 크다[12]고 할 수 있다.

출소자에게 있어 가족은 사회 적응과 재범 예방을 위해 매우 중요한 요인임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출소자와 가족과 관련하여 이루어진 선행연구들은 주로 출소자의 사회복귀를 위한 가족지원 사업[13], 출소 후 가족복귀경험에 대한 교정기관 상담자의 인식[14], 해외의 출소자와 가족에 대한 지원 프로그램[15], 출소 후의 가

족관계 경험[16], 출소자 가정복귀 위험 및 보호요인[17]등으로 이루어져왔다. 그러나 이러한 연구들은 주로 출소자의 가족복귀 사업이나 관련 프로그램에 대한 고찰 및 질적연구에 한해 매우 제한적으로 이루어져 출소자의 가족관계에 대한 구체적인 이해 및 개입에 한계가 있다. 따라서 출소자의 가족관계에 영향을 미치는 심리적 요인에 대한 연구의 필요성이 제기된다.

가족과의 관계를 대표하는 개념은 가족기능성으로 아동기 외상경험과 분노표현방식은 가족기능에 영향을 미치며, 아동기 외상경험 또한 분노표현방식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이에 따라 아동기 외상과 가족기능의 관계에서 분노표현방식이 매개할 가능성이 있지만, 아직 관련 연구는 이루어져 있지 않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아동기 외상이 가족기능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하고, 아동기 외상과 가족기능의 관계에서 분노표현방식의 각 하위요인별 매개효과를 검증하고자 한다.

본 연구는 관련연구가 활발하게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에서 출소자의 가족관계와 이에 영향을 미치는 과정에 대한 이해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아동기 외상과 가족관계를 매개하는 심리적 기제를 밝힘으로써 출소자의 가족관계를 향상시키기 위한 개입을 보다 효과적으로 할 수 있다는 점에서 그 필요성이 크다고 할 수 있다.

위의 내용을 토대로 본 연구에서 설정한 연구문제를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출소자의 아동기 외상경험, 분노표현방식, 가족기능성의 관계는 어떠한가?

둘째, 출소자의 아동기 외상경험과 가족기능성의 관계에서 기능적 분노표현방식과 역기능적 분노표현방식 각각의 매개효과는 어떠한가?

## II. 이론적 배경

### 1. 가족기능성

가족기능성은 가족응집성과 가족적응성으로 나누어 설명할 수 있다. 가족응집성은 가족 구성원 간의 정서적 유대감을 의미하는 것으로 응집성의 수준이 매우 낮

은 과잉분리된 가족에서 응집성의 수준이 매우 높아 지나치게 높아 서로 속박하는 가족으로까지 구분되며, 가족적응성은 가족이 당면하는 상황적, 발달적 과업에 대응해서 가족관계의 역할, 규칙, 권력구조 등을 변화시킬 수 있는 정도로 적응성의 수준이 가장 낮은 경직된 가족에서 허용정도가 지나쳐 혼란스러운 가족으로까지 구분된다[18]. 가족응집성과 가족적응성이 중간수준의 가족의 기능이 가장 효과적으로 본다. 본 연구에서는 가족기능성을 가족응집성과 가족적응성의 두 개념을 포함하는 것으로 보고자 한다. 출소자의 재범에 영향을 끼치는 가족기능성은 원가족과 결혼을 통해 새로 꾸린 가족 모두에 해당하므로, 본 연구에서는 원가족과 결혼을 해서 꾸린 가족의 구별을 두지 않았다.

## 2. 아동기 외상

아동기 외상은 유아 및 아동기의 심리발달을 취약하게 하고 손상을 입히는 충격적인 경험[19]으로 부모를 비롯한 주요 양육자처럼 의존도가 높고 정서적으로 매우 긴밀한 관계에서 입은 심리적 상처를 의미한다[20]. 아동기 외상은 크게 아동에게 신체, 정서, 성적인 폭력이나 가혹행위를 가하는 학대와 기본적인 신체 및 정서적 필요를 충족시켜 줄 수 있는 적절한 환경을 제공해주지 않는 방임으로 나뉘는데[21], 가족 내의 가까운 사람에게 의해 이루어지는 신체적 학대나 방임, 정서적 학대나 방임, 성적학대 등이 이에 해당된다. 신체적 학대는 부모 혹은 양육자가 아동에게 고의적으로 신체적 손상을 입히는 행동을 말하고, 정서적 학대는 아동의 가치감이나 안녕감을 저해하는 언어적·정서적 위협 등의 가학적 행동을 일컫는다. 신체적 방임은 부모 혹은 양육자가 아동에게 필요한 기본적인 의식주, 안전, 건강 등의 양육 및 신체적 보호를 소홀히 하는 행동을 의미하며, 정서적 방임은 아동에게 필요한 기본적인 사랑과 소속감, 양육과 지지 등 정서 및 심리적 환경을 제공하지 않는 행동을 의미한다[22]. 일반적으로 성적학대의 경우 다른 학대에 비해 나타나기 어렵고, 증상 또한 독특한 것으로 나타나 본 연구에서는 아동기 외상을 성학대를 제외한 정서적 학대, 정서적 방임, 신체적 학대, 신체적 방임으로 보고자 한다. 수감자의 50.4%가 적어도

한번 이상의 아동기 외상을 경험하였고[23], 수감자 486명의 약 51%가 아동 및 청소년기에 직·간접적으로 부모 등으로부터 가정폭력을 당하거나 목격한 것으로 나타나[24] 출소자의 경우 아동기 외상을 경험했을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짐작할 수 있다.

## 3. 분노표현방식

분노는 살아가면서 느끼는 자연스러운 감정으로 표현하는 방식에 따라 개인의 행동은 상이하게 나타날 수 있다[25]. 분노를 적절히 표현하면, 긴장이 해소되고 대인관계를 유지하거나 변화시키는데 도움이 되지만, 분노표현에 어려움이 있으면 많은 부분에서 문제를 초래하게 된다[26]. 분노를 표현하는 방식은 기능적인 분노표현방식인 분노조절(anger-control)과 역기능적인 분노표현 방식인 분노표출(anger-out), 분노억제(anger-in)로 분류된다. 분노조절은 화가 나있는 자신의 감정이나 상태에 대해 자각하고 분노 감정을 조절하여 적절하게 표현하도록 방법을 찾는 방식이며, 분노표출은 화가 나면 자신의 분노를 유발시킨 대상에게 신체적 폭력이나 모욕적인 욕설과 같은 극단적인 방법으로 분노를 표출하는 방식이고, 분노억제는 화가 나도 이를 표현하기 보다는 자신의 내면을 향하게 하는 것으로 화를 억압하는 하는 방식이다[27]. 본 연구에서는 분노표현방식을 기능적인 분노표현방식인 분노조절과 역기능적인 분노표현 방식인 분노표출, 분노억제로 보고자 한다.

## 4. 선행연구검토

아동기 외상을 경험한 사람들은 성인기에 친밀한 관계를 형성하는데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28]. 이러한 영향성은 성인기에 지지적인 가족관계 형성의 어려움을 야기하며[29], 가족기능성의 저하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30]. 그러나 아동기 외상을 경험한 모든 사람들이 그런 것은 아닌데, 그 이유 중의 하나는 아동기 외상 그 자체보다는 가족과의 관계에서 정서표현을 어떻게 하는 것이 더 중요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맥락에서 아동기 외상이 성인기 가족과의 관계에 영향을 미치는 과정에서 아동기 외상과 가족과의 관계를 매

개하는 심리적 기제를 확인하는 것은 의미있을 것이다.

아동기에 경험한 방임과 학대는 아동기뿐만 아니라 청소년기와 성인기까지 개인의 성격 발달과 정서 조절 문제에 심각한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31]. 아동기 학대로 인한 정서적 외상경험은 분노와 같은 부정적 정서를 유발할 수 있는데, 부모 혹은 중요한 대상에 의해 자신의 욕구가 좌절되었거나 가치감이 손상되었다고 느낄수록 분노정서는 강해진다[32]. 실제로 아동기 외상을 경험한 사람들은 기쁨, 놀람, 슬픔과 같은 정서를 드러내는 표정을 적대적으로 지각하는 편향을 보이고, 상대방의 의도를 더 적대적으로 해석하는 것[33][34]으로 나타나 아동기 외상 경험이 성인기 분노에 대한 정보처리에 장기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35]을 확인할 수 있다. 이러한 특징은 특히 수감자에게서 더 뚜렷하게 확인할 수 있는데, 높은 아동기 외상 점수를 받은 수감자의 경우 수감생활 중에서 폭력적인 행동을 더 많이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으며[36], 반대로 폭력범의 경우 아동기 외상을 더 많이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다[37][38]. 반면, 학대나 방임과 같은 외상을 경험한 아동들은 가해자인 부모나 중요한 대상에게 분노를 표현하고 공격성을 표출하는 것에 대해 극심한 공포와 갈등을 느껴 분노 표현을 억제하려는 경향이 나타날 수 있다[39]. 이는 학대나 방임적인 환경에서 자녀의 부정적인 정서표현에 대한 부모의 처벌과 통제는 아동이 분노표현을 억제하도록 야기할 수 있기 때문인 것으로 볼 수 있다[40]. 이와 같이 아동기 외상은 역기능적인 분노표현방식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분노는 갈등이나 대인관계 문제를 유발시킬 수 있는데[41], 특히 분노를 표현하는 방식에 따라 대인관계의 양상이 다를 수 있다. 이를 분노표현방식의 하위요인별로 살펴보면 기능적인 분노표현방식으로 분노를 조절할 경우, 자신의 생각이나 감정을 상대방에게 전달하는 과정을 통해 관계가 지속 및 강화[42]될 가능성이 높다. 이와 달리 역기능적인 분노표현방식을 사용할 경우에는 중요한 타인과의 관계가 손상됨에 따라 전반적인 삶의 질에도 영향을 주게 되는데[43][44], 분노를 표출하는 남성의 45%가 지난 1년 동안 관계가 끊어지거나, 갈등으로 인해 고통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45]. 분노억

제 또한 대인관계문제에 많은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46], 분노억제를 많이 할수록 대인관계문제를 많이 경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47]. 분노표출과 분노억제가 대인관계문제를 유발하는 이유는 분노를 조절하기 위해서는 화에 대한 자각이 선행되어야 하는데, 분노를 자각하기 이전에 억누르거나 과도하게 표현하는 경향 때문인 것으로 볼 수 있다[48]. 이러한 분노표현방식은 가족관계의 문제를 유발한다[49]. 따라서 분노표현방식과 가족기능과의 관계에 대한 선행연구는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으나, 분노표현방식이 가족기능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음을 알 수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분노표현방식이 출소자의 아동기 외상경험과 가족기능과의 관계에서 매개효과를 나타내는지 살펴보고자 한다.

### III. 연구방법

#### 1. 연구모형

본 연구에서는 아동기 외상이 가족기능에 미치는 영향관계에서 분노표현방식의 각 하위요인별 매개효과를 검증하고자 한다. 이에 대한 연구모형은 [그림 1]과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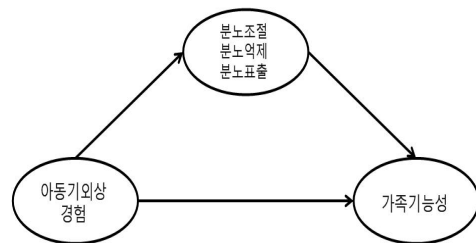


그림 1. 연구모형

#### 2. 연구대상 및 자료수집

본 연구에서는 2014-2015년 사이에 이루어진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의 용역연구(‘출소자 가정 복원을 위한 가족 실태조사 및 중장기 지원방안연구’)를 통해 공단의 주거지원을 받고 있는 출소자들을 대상으로 수집된 자료를 활용하였다. 본 자료분석을 위하여 성균관대학교 외상심리건강연구소(소장 이동훈)로부터 자료사용

표 1. 인구사회학적 변인과 형사사법적 변인의 빈도분석 (n=400)

변인	구분	n(%)	변인	구분	n(%)
성별	남	330(82.5)	수감기간	1년 미만	119(30.3)
	여	70(17.5)		1년 ~ 2년	105(26.7)
연령	20세 ~ 29세	7(1.8)		2년 ~ 5년	82(20.9)
	30세 ~ 39세	50(12.5)		5년 ~ 10년	42(10.7)
	40세 ~ 49세	141(35.3)		10년 이상	45(11.5)
	50세 ~ 59세	163(40.8)	범죄유형	사기	126(37.5)
	60세 ~ 69세	38(9.5)		폭력	33(9.8)
	70세 이상	1(0.3)		살인	32(9.5)
학력	무학	3(0.8)		절도	31(9.2)
	초등학교 중퇴	4(1.0)		교통특례	26(7.7)
	초등학교 졸업	19(4.8)		항정	24(7.1)
	중학교 중퇴	15(3.8)	강도	15(4.5)	
	중학교 졸업	39(9.8)	기타	49(14.7)	
	고등학교 중퇴	45(11.3)		1범	212(61.3)
	고등학교 졸업	158(39.5)	2범	59(17.1)	
	(전문)대학교 중퇴	33(8.3)	3범	38(11.0)	
(전문)대학교 졸업	78(19.5)	4범	15(4.3)		
대학원 이상	6(1.5)	5범	8(2.3)		
취업상태	취업준비 중	34(8.6)	전과횟수	6범	5(1.4)
	비정규직	147(37.2)		7범	2(0.6)
	정규직	97(24.6)		8범	3(0.9)
	자영업	117(29.6)		9범	2(0.6)
동거인	없음	39(9.8)		10범	2(0.6)
	배우자	40(10.0)		10세 ~ 19세	2(0.6)
	자녀	56(14.0)			20세 ~ 29세
	배우자 및 자녀	221(55.3)		최초 수감나이	30세 ~ 39세
생계책임 여부	생계책임(유)	354(88.7)	40세 ~ 49세		106(32.7)
	생계책임(무)	45(11.3)	50세 ~ 59세	44(13.6)	
월 소득	100만원	53(13.3)	60세 이상	4(1.2)	
	100~200만원 미만	183(45.8)			
	200~300만원 미만	124(31.0)			
	300~500만원 미만	31(7.8)			
	500~600만원 미만	7(1.8)			
	600만원 이상	2(0.5)			

에 대한 승인을 받았다. 자료수집은 용역연구 당시 연구팀에서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본부와 전국 15개 지부 (서울, 인천, 경기, 강원, 대전, 충남, 충북, 대구경북, 부산, 울산, 경남, 광주전남, 전북, 제주) 책임자 및 실무자들에게 설문목적, 설문내용, 설문 실시방법, 연구 종료 후 수집자료 처리 등에 관하여 직접 설명하였고 추후 공식적으로 공문을 통해 설문실시 요청을 하였다. 이후 모집된 연구대상자들에게 설문목적에 대해 안내를 한 후 설문조사에 대해 동의를 한 사람들만을 대상으로 응답 내용이 연구목적 이외에는 사용되지 않으며, 개인정보에 대한 비밀보장 등 설문 조사와 관련하여 수반되는 연구윤리 준수사항에 대해 설명하고 자기보고식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설문기간은 2014년 1월부터

2014년 12월까지였고, 설문을 완료한 후에는 소정의 상품을 지급하였다. 완료된 설문지는 각 지부에서 취합하여 우편을 통해 전달받았다. 배포된 500부 중에서 431부가 회수되었으며, 본 연구에는 무성의한 응답 자료 31부를 제외한 400부가 사용되었다.

연구 참여자들의 인구사회학적 정보를 알아보기 위하여 빈도분석을 실시한 결과는 [표 1]과 같다. 연구 참여자 중 남성은 330명(82.5%), 여성은 70명(17.5%)이었으며, 연령은 50~59세 163명(40.8%), 학력은 고등학교 졸업이 158명(39.5%), 취업상태는 비정규직이 147명(37.2%)으로 각 인구사회학적 변인에서 빈도가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동거인에서는 배우자 및 자녀와 함께 동거하는 인원이 221명(55.3%)로 가장 많았다. 연

구대상 중 354명(88.7%)이 생계를 책임지고 있었으며, 가족 월 소득은 100만원~200만원 미만이 183명(45.8%)으로 월 소득 중 빈도가 가장 높게 나타났다. 또한 형사사법적 변인인 수감기간에서는 1년 미만이 119명(30.3%), 범죄유형에서는 사기가 126명(37.5%), 전과횟수에서는 1범이 212명(61.3%), 최초 수감나이는 30세~39세 119명(36.7%)으로 각 형사사법적 변인에서 빈도가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는 연구자 소속 기관으로부터 IRB 승인을 받아 연구윤리를 준수하였다(SKKU 2014-10-001-004).

### 3. 측정도구

#### 3.1 아동기 외상 척도

본 연구에서는 출소자의 아동기 외상을 측정하기 위해서 Bernstein과 Fink[50]가 개발한 아동기 외상 척도(Childhood Traumatic Questionnaire: CTQ)를 이유경[51]이 번안하고, 정희진[52]이 수정 및 보완한 척도를 사용하였다. 본 척도는 정서적 학대, 정서적 방임, 신체적 학대, 신체적 방임, 성적 학대 등 5가지 하위요인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각 하위요인별로는 5개 문항씩 총 25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5점 Likert식 척도로 점수가 높을수록 아동기 외상의 정도가 크다는 것을 의미한다. 최영신, 황정임[53]의 연구에서 수감자들이 경험한 어린 시절의 학대 경험은 정서적 학대, 신체적 학대, 성적 학대의 순서로 학대 경험 비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성적학대의 경우 다른 학대에 비해 일반적으로 나타나기 어렵고, 그 증상 또한 고유하고 독특한 것으로 나타나 본 연구에서는 연구 방향의 적합성을 고려해 하위 요인 중 성적 학대 5문항을 제외한 총 20문항을 선정했다. 본 연구에서의 전체 Cronbach's  $\alpha$ 는 .90이었고, 하위척도인 정서적 학대, 정서적 방임, 신체적 학대, 신체적 방임은 각각 .81, .93, .92, .61로 나타났다.

#### 3.2 가족기능성 척도

본 연구에서는 출소자의 가족기능을 측정하기 위하여 Olson[54]이 개발한 FACES-III(Family Adaptability and Cohesion Evaluation Scales)를 고은미[55]가 번안한 척도를 사용하였다. 본 척도는 가족적응성과 가족

응집성의 2가지 하위요인으로 구성되었으며, 각 요인별로 10개 문항씩 총 20개의 문항으로 구성되었다. 5점 Likert식 척도로 점수가 높을수록 가족기능성이 높음을 의미한다. 가족응집성은 가족의 정서적 유대, 가족의 지지, 가족원간의 경계, 가족 공동시간과 친구관계 및 가족의 여가시간에 대한 관심의 다섯 가지 구체적인 영역을 포함하며, 가족적응성은 가족의 지도력, 통제, 훈육, 역할 및 규칙을 포함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의 전체 Cronbach's  $\alpha$ 는 .94이었고, 하위척도인 가족응집성, 가족적응성은 각각 .92, .84로 나타났다.

#### 3.3 분노표현방식 척도

본 연구에서는 출소자의 분노표현방식을 측정하기 위하여 Spielberger, Krasner와 Solomon[56]이 개발한 척도를 전경구, 한덕웅, 이장호[57]가 한국판으로 개발한 상태-특성분노표현척도(STAXI-K: State-Trait Anger Expression Inventory- Korean version) 중 전성희[58]가 상태분노를 제외하고 수정한 척도를 사용하였다. 본 분노표현방식 척도는 분노조절, 분노억제, 분노표출 등 3가지 하위요인으로 구성되었으며, 각 요인별로 8개 문항씩 총 24문항으로 구성되었다. 연구에 대한 문항은 4점 Likert식 척도로 각 하위영역별 점수가 높을수록 해당 분노표현 방식을 많이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 본 연구의 Cronbach's  $\alpha$ 는 분노조절, 분노억제, 분노표출은 각각 .83, .82, .85인 것으로 나타났다.

### 4. 분석방법

본 연구에서는 자료분석을 위하여 SPSS 21.0 프로그램과 AMOS 21.0 프로그램을 사용하였다. 첫째, 측정변인들의 특성과 상관관계를 알아보기 위하여 기술통계 및 상관분석을 실시하고, 신뢰도 분석을 위하여 내적합치도계수(Cronbach's  $\alpha$ )를 산출하였다. 둘째, 아동기 외상과 가족기능성과의 관계에서 분노표현방식의 매개효과를 검증하기 위하여 측정변인들이 잠재변인들을 적절히 구인하는지 알아보기 위해 확인적 요인분석을 실시하였다. Russel, Kahn, Spoth와 Altmaier[59]의 권고에 따라 분노표현 방식의 3가지 하위변인을 각각 문항꾸러미(Item Parcelling)로 합산하여 분석에 사용하

였다. 문항꾸러미 제작 방식은 서영석[60]이 제시한 바와 같이 탐색적 요인분석을 실시한 후, 문항들을 요인 부하량에 따라 순서를 매기고, 그런 다음 모든 꾸러미들이 잠재변인에 동일한 부하량을 갖도록 문항들을 묶었다. 구조방정식모형 분석 후에 아동기 외상경험과 가족기능의 관계에서 분노표현방식의 간접효과를 검증하기 위하여 부트스트랩(Bootstrapping) 실시하였다.

#### IV. 연구결과

##### 1. 상관관계분석

아동기 외상, 가족기능성, 분노표현방식의 관계를 파악하기 위해 상관분석을 실시한 결과는 다음 [표 2]와 같다. 아동기 외상은 가족기능과 부적상관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아동기 외상과 분노표현방식의 각 하위 요인 간의 상관관계를 살펴보면, 아동기 외상은 기능적 분노표현방식인 분노조절과는 부적 상관을 보였으나, 역기능적 분노표현방식의 하위요인인 분노억제, 분노표출과는 정적상관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분노표현방식의 각 하위변인과 가족기능의 상관관계를 살펴보면, 기능적 분노표현방식인 분노조절은 가족기능성에서 정적상관을 보였으나, 역기능적 분노표현방식인 분노억제, 분노표출과는 부적상관을 보였다.

표 2. 주요변인의 상관관계

	아동기 외상	분노조절	분노억제	분노표출	가족기능
아동기 외상	1				
분노조절	-.24**	1			
분노억제	.36**	-.11*	1		
분노표출	.40**	-.36**	.63**	1	
가족기능	-.39**	.33**	-.38**	-.33**	1

##### 2. 측정 모형 검증

측정 모형의 적합도를 알아보기 위해 확인적 요인분석을 한 결과는 다음 [표 3]과 같다. 분노조절 모델에 대

한 측정모형은  $\chi^2(df=24, p<.01)=98.36$ , CFI=.950, TLI=.925, RMSEA=.088[90% CI=(.070~.107)], 분노억제 모델에 대한 측정모형은  $\chi^2(df=24, p<.01)=74.35$ , CFI=.969, TLI=.954, RMSEA=.073[90% CI=(.054~.092)], 분노표출 모델에 대한 측정모형에서  $\chi^2(df=24, p<.01)=84.93$ , CFI=.962, TLI=.944, RMSEA=.080[90% CI=(.062~.099)]로 나타나 양호한 적합도를 보여 수용 가능한 것으로 나타났다.

표 3. 측정 모형의 적합도

	$\chi^2$	df	p	RMSEA	CFI	TLI
분노조절	98.36	24	***	.088(.070~.107)	.950	.925
분노억제	74.35	24	***	.073(.054~.092)	.969	.954
분노표출	84.93	24	***	.080(.062~.099)	.962	.944

##### 3. 구조모형의 적합도 검증

측정모형의 적합도를 확인한 후, 본 연구에서 설정한 연구모형인 아동기 외상경험이 가족기능성에 미치는 영향에서 분노표현방식(분노조절, 분노억제, 분노표출)의 부분매개효과를 검증하기 위해 구조방정식 모형분석을 실시하였다.

분노조절모형은  $\chi^2(24, N=400)=98.36$ ,  $p<.001$ , CFI=.950, TLI=.925, RMSEA=.088 [90% CI=(.070-.107)], 분노억제모형은  $\chi^2(24, N=400)=74.35$ ,  $p<.001$ , CFI=.969, TLI=.954, RMSEA=.073 [90% CI=(.054-.092)], 분노표출모형은  $\chi^2(24, N=400)=84.93$ ,  $p<.001$ , CFI=.962, TLI=.963, RMSEA=.080 [90% CI=(.062-.099)]으로 전반적인 적합도 지수는 수용 가능한 수준인 것으로 나타나 연구모형이 자료를 잘 반영한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연구모형의  $\chi^2$ 값과 적합도 지수는 [표 4]에 제시하였다.

표 4. 모형 적합도 검증

모형	$\chi^2$	df	p	CFI	TLI	RMSEA	$\Delta\chi^2$
분노조절모형	98.36	24	***	.950	.925	.088	33.484
분노억제모형	74.35	24	***	.969	.954	.073	17.28
분노표출모형	84.93	24	***	.962	.963	.080	20.07

4. 구조모형분석

분노조절모형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표 5]에서와 같이 아동기 외상은 분노조절( $\beta = -.253, p < .001$ )을 유의미하게 예측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분노조절 또한 가족기능( $\beta = .283, p < .001$ )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함께 아동기 외상이 가족기능으로 가는 경로( $\beta = -.339, p < .001$ )도 통계적으로 유의하므로 부분매개 모형이 자료를 더 잘 설명하는 모형이라고 할 수 있다. 즉 분노조절은 아동기 외상경험과 가족기능 간의 관계를 부분매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5. 분노조절 부분매개 모형의 경로계수

경로	B	$\beta$	S.E.	t
아동기 외상 경험 → 분노조절	-.179	-.253***	.045	-3.943
분노조절 → 가족기능성	.542	.283***	.109	4.952
아동기 외상 경험 → 가족기능성	-.459	-.339***	.081	-5.680

\*\*\* $p < .00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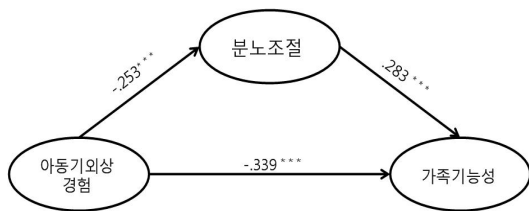


그림 2. 분노조절 모형

분노억제모형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표 6]에서와 같이 아동기 외상은 분노억제( $\beta = .466, p < .001$ )를 유의미하게 예측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분노억제 또한 가족기능성( $\beta = -.314, p < .001$ )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함께 아동기 외상이 가족기능으로 가는 경로( $\beta = -.261, p < .001$ )도 통계적으로 유의하므로 부분매개 모형이 자료를 더 잘 설명하는 모형이라고 할 수 있다. 즉 분노억제는 아동기 외상경험과 가족기능 간의 관계를 부분매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6. 분노억제 부분매개 모형의 경로계수

경로	B	$\beta$	S.E.	t
아동기 외상 경험 → 분노억제	.324	.466***	.045	7.272
분노억제 → 가족기능성	-.570	-.314***	.113	-5.026
아동기 외상 경험 → 가족기능성	-.329	-.261***	.081	-4.070

\*\*\* $p < .00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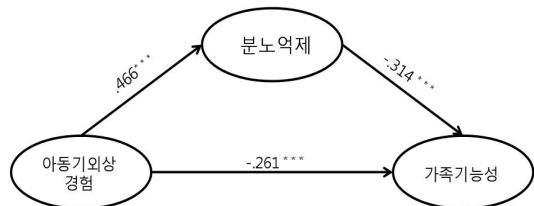


그림 3. 분노억제 모형

분노표출모형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표 7]에서와 같이 아동기 외상은 분노표출( $\beta = .505, p < .001$ )을 유의미하게 예측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분노표출 또한 가족기능( $\beta = -.213, p < .001$ )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함께 아동기 외상이 가족기능으로 가는 경로( $\beta = -.302, p < .001$ )도 통계적으로 유의하므로 부분매개 모형이 자료를 더 잘 설명하는 모형이라고 할 수 있다. 즉 분노표출은 아동기 외상경험과 가족기능 간의 관계를 부분매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7. 분노표출 부분매개 모형의 경로계수

경로	B	$\beta$	S.E.	t
아동기 외상 경험 → 분노표출	.324	.505***	.043	7.551
분노표출 → 가족기능성	-.440	-.213***	.134	-3.294
아동기 외상 경험 → 가족기능성	-.400	-.302***	.092	-4.372

\*\*\* $p < .00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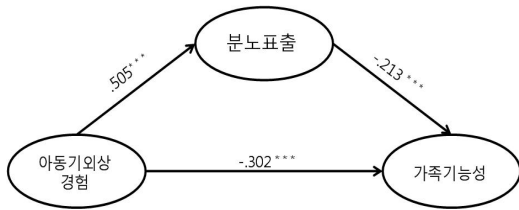


그림 4. 분노억제 모형

5. 매개효과의 유의성 검증

본 연구의 매개효과의 통계적 유의성을 검증하기 위해 Bootstrapping을 실시하였다. 각 모형의 매개효과 검증결과는 [표 8]과 같다.

아동기 외상경험이 분노조절을 거쳐 가족기능으로 가는 간접효과는 5% 유의도 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였다( $\beta = -.097, p < .05, 95\% CI, -.19 \sim -.04$ ). 아동기 외상경험이 분노억제를 거쳐 가족기능으로 가는 간접효과는 5% 유의도 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였다( $\beta = -.185, p < .05, 95\% CI, -.31 \sim -.10$ ). 아동기 외상경험이 분노표출을 거쳐 가족기능으로 가는 간접효과는 5% 유의도 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였다( $\beta = -.143, p < .05, 95\% CI, -.27 \sim -.04$ ).

표 8. 매개모형 효과 검증

경로	매개효과	95% 신뢰구간	
		하한	상한
아동기 외상 경험 → 분노조절 → 가족기능성	-.097	-.19	-.04
아동기 외상 경험 → 분노억제 → 가족기능성	-.185	-.31	-.10
아동기 외상 경험 → 분노표출 → 가족기능성	-.143	-.27	-.04

\* $p < .05$

IV. 논의 및 결론

본 연구는 출소자들을 대상으로 아동기 외상이 가족 기능에 영향을 미치는 과정에서 분노표현방식이 매개 역할을 하는지 구조모형을 통해 검증하고자 하였다. 본 연구의 주요결과를 중심으로 논의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아동기 외상, 분노표현방식, 가족기능성과의 관계를 파악하기 위해 상관분석을 한 결과, 아동기 외상

과 가족기능은 부적상관을 나타냈다. 이는 아동기 외상이 낮은 가족기능성과 관련이 있다는[30] 연구결과와 맥을 같이한다. 아동기 외상과 기능적 분노표현방식인 분노조절과는 부적상관을 나타냈으며, 역기능적 분노표현방식의 하위요인인 분노억제, 분노표출과는 정적상관을 보이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러한 결과는 아동기 외상 경험은 분노조절과는 부적의 관계를 나타내고, 분노표출, 분노억제와는 정적인 관계를 나타낸 결과 [61]를 지지한다. 분노표현방식의 각 하위변인과 가족 기능간의 상관분석 결과, 기능적 분노표현방식인 분노조절은 가족기능성과 정적상관을 나타냈으며, 역기능적 분노표현방식인 분노표출과 분노억제는 가족기능성과 부적상관을 나타냈다. 이러한 결과는 분노와 가족기능은 부적상관이 있는 것으로 나타난 결과[62]와 맥락을 같이한다.

둘째, 아동기 외상과 가족기능과의 관계에서 기능적 분노표현방식인 분노조절과 역기능적 분노표현방식인 분노표출, 분노억제의 매개효과를 검증한 결과, 분노조절과 분노표출, 분노억제 모두 아동기 외상과 가족기능과의 관계를 부분매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아동기 외상이 가족기능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기도 하지만, 매개변인인 분노조절과 분노표출, 분노억제를 통해 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치기도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분노표현방식이 기능적인지 역기능적인지에 따라 그 양상은 다르게 나타나는데, 이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아동기 외상을 경험한 출소자는 가족과의 관계에 어려움을 많이 경험할 수 있는데, 아동기 외상을 경험한 출소자라도 분노를 적절하게 조절하여 표현하는 경우에는 가족과의 관계가 좋을 수 있지만, 이와 달리 아동기 외상을 경험한 출소자들이 분노를 적절하게 표현하지 못하거나 억제하는 경향이 있는 경우에는 가족과의 관계가 더 좋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을 나타낸다. 이러한 결과는 아동기 외상이 가족기능성[30]과 분노를 표출하거나 억제하는데 영향을 준다[32][39]는 선행연구와 기능적인 분노표현방식인 분노조절이 관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데[42] 반해, 역기능적 분노표현방식인 분노표출과 분노억압은 대인관계를 비롯해 가족과의 문제를 유발하는 것으로 나타난 연구결과[48]

를 지지한다. 본 연구결과는 선행연구가 활발히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에서 도출된 결과이므로, 후속연구에서 이들 관계를 다시 확인할 필요가 있다.

이상의 결과를 통해 아동기 외상을 경험한 출소자들이 가족관계의 갈등이나 어려움을 겪을 경우, 가족의 기능을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출소자의 분노표현방식을 확인하고, 이를 적절하게 표현하여 조절할 수 있도록 돕는 치료적 개입이 보다 유용할 수 있다. 역기능적 분노표현방식 중 분노표출을 주로 사용하는 출소자라면 분노감정에 압도되지 않고, 자신의 감정을 자각하고 이를 진정시키고 자신과 타인을 이해할 수 있는 조망을 확장하여 분노의 감정을 적절한 수준으로 표현할 수 있는 방법을 함께 찾고 체화할 수 있도록 도움 필요가 있다. 또 다른 역기능적 분노표현방식인 분노억제를 주로 사용하는 출소자의 경우, 억제된 분노를 인식하고 적절하게 표현하도록 할 필요가 있다. 무엇보다 분노억제 수준이 높은 개인은 분노표현에 대한 부정적인 비합리적 신념을 가지고 있을 수 있으므로, 이러한 신념을 합리적으로 바꾸어가면서 정서를 자각하고 적절하게 표현할 수 있도록 개입을 하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다. 그러나 보다 근본적인 개입을 위해서는 출소자의 가족관계 개선을 위해서는 분노표현방식을 기능적으로 바꾸는 개입과 함께 아동기 외상경험도 충분히 다루어 회복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의 시사점은 다음과 같다. 출소자의 재범예방에 가족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보고되어 왔지만, 이전의 선행연구는 출소자의 가족관계에 영향을 미치는 심리적 요인에 대한 확인없이 출소자의 가족복지 사업이나 관련 프로그램에 대한 고찰연구나 질적연구로 이루어져 출소자의 가족관계에 대한 구체적인 이해 및 개입에 한계가 있어왔다. 본 연구는 이러한 선행연구의 한계에서 출소자의 가족기능에 영향을 미치는 심리적 기제를 확인하였다는데 의의가 있다.

본 연구의 제한점과 후속연구를 위한 제언들은 다음과 같다. 제한점으로 첫째,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에서 주거지원을 받고 있는 국한된 대상을 표본으로 하였기 때문에 출소자 집단 전체의 특성을 반영한 결과라도 보기는 어려우며 이에 대한 일반화가 어렵다는 표본의 제

한점이 있다. 더 큰 표본을 근거로 하여 여성이나 청소년 등의 범죄자를 포함할 필요가 있겠다. 둘째, 자기보고식으로 인구나사회학적 변인, 형사사법적 변인, 심리적 변인 척도를 사용하여 대상자들이 직접 자신의 특성을 응답할 때 축소 혹은 과장하여 응답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셋째, 본 연구에서는 분노표현방식에 대한 성별의 차이, 연령의 차이, 범죄유형의 차이를 고려하지 않고 출소자 전체적인 특성으로 확인하였으므로, 추후 후속연구에서는 출소자의 성별이나 연령, 범죄유형 등을 고려한 연구가 진행된다면, 좀 더 세밀한 심리적 개입 및 상담이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해 볼 수 있다. 넷째, 본 연구는 아동기 외상경험과 가족기능성과의 관계에서 분노표현방식의 하위요인별로 매개효과를 검증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방법으로는 아동기 외상 경험이 어떤 분노표현 방식에 영향을 주고, 어떤 분노표현방식이 가족기능성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해 명확한 파악이 어렵다는 한계가 있다. 따라서 추후 연구에서는 분노표현방식의 세 유형을 함께 고려한 모형을 설정하여 이들 간의 관계를 확인해볼 필요가 있다.

\* 본 연구는 제 1저자의 석사학위논문 수정 및 보완한 것임.

## 참 고 문 헌

- [1] 법무연수원, *범죄백서*, 법무연수원, 2007.
- [2] T. Hirschi, *Causes of Delinquency*, Berkeley: University of California Press, 1969.
- [3] IV, J. H. Boman and T. J. Mowen, "Building the ties that bind, breaking the ties that don't: Family support, criminal peers, and reentry success," *Criminology & Public Policy*, Vol.16, No.3, pp.753-774, 2017.
- [4] T. J. Mowen, R. Stansfield, and IV, J. H. Boman, "Family Matters: Moving Beyond "If" Family Support Matters to "Why" Family Support Matters during Reentry from Prison," *Journal of Research in Crime and Delinquency*,

- 0022427818820902, pp.1-41, 2018.
- [5] 조희원, 도광조, “출소자의 취업경험에 관한 질적 연구,” 한국교정복지학회, 제32권, pp.51-81, 2014.
- [6] N. M. Morani, N. Wikoff, D. M. Linhorst, and S. Bratton, “A description of the self-identified needs, service expenditures, and social outcomes of participants of a prisoner-reentry program,” *The Prison Journal*, Vol.91, No.3, pp.347-365, 2011.
- [7] M. T. Berg and B. M. Huebner, “Reentry and the ties that bind: An examination of social ties, employment, and recidivism,” *Justice quarterly*, Vol.28, No.2, pp.382-410, 2011.
- [8] A. Yocum and S. Nath, “Anticipating father reentry: A qualitative study of children’s and mothers’ experiences,” *Journal of Offender Rehabilitation*, Vol.50, No.5, pp.286-304, 2011.
- [9] S. J. Bahr, A. H. Armstrong, B. G. Gibbs, P. E. Harris, and J. K. Fisher, “The reentry process: How parolees adjust to release from prison,” *Fathering*, Vol.3, No.3, pp.243-266, 2005.
- [10] E. Sullivan, M. Mino, K. Nelson, and J. Pope, *Families as a resource in recovery from drug abuse: An evaluation of La Bodega de la Familia*, New York, NY: Vera Institute of Justice, 2002.
- [11] S. Farrall, *Social capital and offender reintegration: Making probation desistance focused*, In: After crime and punishment, Willan, 2013.
- [12] 박선영, *수형자 사회복귀를 지원하는 공생의 사회구현 실행방안 연구*, 경제 인문사회연구 공생발전 협동연구총서, 2012.
- [13] 이인곤, “출소자의 사회복귀를 위한 가족지원 (복지)사업에 관한 연구,” *한국경찰연구*, 제14권, 제3호, pp.153-180, 2015.
- [14] 이동훈, 강수운, 지승희, “수감자의 출소 후 가족복귀 경험에 관한교정기관 상담자의 인식,” *한국 심리학회지: 문화및사회문제*, 제22권, 제4호, pp.595-622, 2016.
- [15] 유수연, “독일의 출소 (예정)자와 그 가족에 대한 지원 프로그램,” *보호관찰*, 제15권, 제1호, pp.51-77, 2014.
- [16] 이동훈, 신지영, 조은정, 김진주, “수감생활 및 출소 후 과정에서 여성출소자의 삶과 가족관계 경험,” *한국심리학회지: 여성*, 제21권, 제1호, pp.81-108, 2016.
- [17] 류석진, 노지애, 이동훈, 박성현, 오세준, 조현주, “출소자 가정복귀의 위험 및 보호요인에 관한 질적연구,” *재활심리연구*, 제23권, 제2호, pp.469-490, 2016.
- [18] D. H. Olson, J. Portner, and Y. Lavee, *Family adaptability cohesion evaluation scales III*, In D. H. Olson, H. I. McCubbin, H. L. Barnes, A. Sen, M. Muzen, & M. Wilson, *Family Inventories*(p.41), MI: University of Minnesota Press, 1985.
- [19] 손승희, “아동기의상과 관계중독의 관계에서 내면화된 수치심의 매개효과 검증: 여자대학생을 중심으로,” *한국심리학회지: 상담 및 심리치료*, 제29권, 제3호, pp.743-763, 2017.
- [20] J. G. Allen, H. Stein, P. Fonagy, J. Fultz, and M. Target, “Rethinking adult attachment: a study of expert consensus,” *Bulletin of the Menninger Clinic*, Vol.69, No.1, pp.59-80, 2005.
- [21] J. Brown, P. Cohen, J. G. Johnson, and E. M. Smailes, “Childhood abuse and neglect: specificity of effects on adolescent and young adult depression and suicidality,” *Journal of the American Academy of Child & Adolescent Psychiatry*, Vol.38, No.12, pp.1490-1496, 1999.
- [22] C. A. Courtois, “Complex trauma, complex reactions: Assessment and treatment,” *Psychotherapy: Theory, Research, Practice, Training*, Vol.41, No.4, pp.412-425, 2004.

- [23] M. Driessen, T. Schroeder, B. Widmann, C. von Schonfeld, and F. Schneider, "Childhood trauma, psychiatric disorders, and criminal behavior in prisoners in Germany: a comparative study in incarcerated women and men," *Journal of Clinical Psychiatry*, Vol.67, No.10, pp.1486-1492, 2006.
- [24] 신동욱, *아동·청소년기 가정폭력 피해경험이 성인범죄에 미치는 영향*, 치안정책연구소 생활안전정책 연구실 책임연구보고서, 2013.
- [25] 김지윤, 하은혜, "여고생의 완벽주의와 폭식행동의 관계에서 분노표현방식의 매개효과," *청소년상담연구*, 제21권, 제2호, pp.99-119, 2013.
- [26] 임미옥, 송민경, 김청송, "청소년의 분노표현방식과 심리적 부적응에 대한 사회적 지지의 중재모형연구," *청소년학연구*, 제19권, 제4호, pp.247-270, 2012.
- [27] C. D. Spielberger, E. C. Reheiser, and S. J. Sydeman, "Measuring the experience, expression, and control of anger," *Issues in comprehensive pediatric nursing*, Vol.18, No.3, pp.207-232, 1995.
- [28] G. W. Brown and P. Moran, "Clinical and psychosocial origins of chronic depressive episodes: I: A community survey," *The British Journal of Psychiatry*, Vol.165, No.4, pp.447-456, 1994.
- [29] G. McCarthy and A. Taylor, "Avoidant/ambivalent attachment style as a mediator between abusive childhood experiences and adult relationship difficulties," *The Journal of Child Psychology and Psychiatry and Allied Disciplines*, Vol.40, No.3, pp.465-477, 1999.
- [30] D. M. Fergusson, L. J. Horwood, and M. T. Lynskey, "Childhood sexual abuse and psychiatric disorder in young adulthood: II. Psychiatric outcomes of childhood sexual abuse," *Journal of the American Academy of Child & Adolescent Psychiatry*, Vol.35, No.10, pp.1365-1374, 1996.
- [31] J. Bowlby and E. J. M Bowlby, *Loss-Sadness and Depression: Attachment and Loss (Vol. 3)*. Random House, 2008.
- [32] 이나영, 하수홍, 장문선, "아동기 정서적 외상 경험과 성인기 우울 간의 관계에서 분노억제와 전위공격성의 매개효과," *상담학연구*, 제18권, 제2호, pp.203-222, 2017.
- [33] N. R. Crick and K. A. Dodge, "A review and reformulation of social information-processing mechanisms in children's social adjustment," *Psychological bulletin*, Vol.115, No.1, pp.74-101, 1994.
- [34] S. D. Pollak and P. Sinha, "Effects of early experience on children's recognition of facial displays of emotion," *Developmental psychology*, Vol.38, No.5, pp.784-791, 2002.
- [35] 황다연, 이경순, 장은영, "수형자들의 아동기 외상이 분노유발사건에 대한 행동적 반응에 미치는 영향과 인지적 매개효과," *대한불안학회지*, 제10권, 제2호, pp.95-102, 2014.
- [36] M. Sarchiapone, V. Carli, C. Cuomo, M. Marchetti, and A. Roy, "Association between childhood trauma and aggression in male prisoners," *Psychiatry research*, Vol.165, No.1, pp.187-192, 2009.
- [37] A. Schimmenti, G. Di Carlo, A. Passanisi, and V. Caretti, "Abuse in childhood and psychopathic traits in a sample of violent offenders," *Psychological trauma: theory, research, practice, and policy*, Vol.7, No.4, pp.340-347, 2015.
- [38] Z. Zou, H. Meng, Z. Ma, W. Deng, L. Du, H. Wang, P. Chen, and H. Hu, "Executive functioning deficits and childhood trauma in juvenile violent offenders in China," *Psychiatry research*, Vol.207, No.3, pp.218-224, 2013.

- [39] J. G. Allen, *트라우마의 치유[Coping with trauma: Hope through understanding, 2nd Ed.]*. (권정혜, 김정범, 조용래, 최혜경, 최윤경, 권호인 공역), 서울: 학지사, 2010.
- [40] R. A. Fabes, S. A. Leonard, K. Kupanoff, and C. L. Martin, "Parental coping with children's negative emotions: Relations with children's emotional and social responding," *Child Development*, Vol.72, No.3, pp.907-920, 2001.
- [41] M. Schmitt and C. Altstötter-Gleich, "*Differentielle und Persönlichkeitspsychologie - kompakt*," Weinheim: Beltz, 2010.
- [42] 정미라, *내면적자기애가 분노표현에 미치는 영향 내면화된 수치심의 매개효과*, 성신여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10.
- [43] 고윤경, *분노표현태도와 대인관계문제: 분노표현방식의 매개효과*, 전남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7.
- [44] 최임정, 심혜숙, "대학생의 내면화된 수치심과 분노표현양식이 대인관계문제에 미치는 영향," *한국심리학회지: 상담 및 심리치료*, 제22권, 제2호, pp.479-492, 2010.
- [45] J. L. Deffenbacher, P. M. Demm, and A. D. Brandon, "High general anger: Correlates and treatment," *Behaviour Research and Therapy*, Vol.24, No.4, pp.481-489, 1986.
- [46] 김우정, *분노가 대인관계효능감에 미치는 영향: 분노조절과 정서인식명확성의 매개효과*, 가톨릭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14.
- [47] 박은혜, *유아교사론(3판)*, 서울: 창지사, 2009.
- [48] 강지연, *대학생의 생활스트레스, 분노표현 및 대인관계 문제 간의 관계*, 충북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11.
- [49] R. Avci and S. S. Guçray, "An Investigation of Violent and Nonviolent Adolescents' Family Functioning, Problems Concerning Family Members, Anger and Anger Expression," *Educational Sciences: Theory and Practice*, Vol.10, No.1, pp.65-76, 2010.
- [50] D. P. Bernstein and L. Fink, *Childhood trauma questionnaire: A retrospective self-report: Manual*, Harcourt Brace & Company, 1998.
- [51] 이유경, *여대생의 아동기 외상경험이 심리적 증상과 대인관계문제에 미치는 영향 애착의 매개효과를 중심으로*, 이화여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06.
- [52] 정희진, "게시발표: 복합외상경험과 관계성 역량의 변화 및 우울간의 관계," *한국심리학회 연차 학술발표논문집*, 단일호, pp.346-347, 2008.
- [53] 최영신, 황정임, *여성 출소자의 사회적응 지원 방안 연구*, 형사정책연구원 연구총서, 2006.
- [54] D. H. Olson, *Faces III*, Family Social Science, University of Minnesota, 1985.
- [55] 고은미, *청각장애청소년의 가족응집성, 가족적응성 및 부모-자녀간 의사소통유형이 자아존중감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성균관대학교 사회복지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9.
- [56] C. D. Spielberger, S. S. Krasner, and E. P. Solomon, *The experience, expression, and control of M.P. Janisse M. P. (Ed.), Health Psychology: Individual difference and stress(pp.89-108)*, NY.: Springer-Verlag, 1988.
- [57] 전경구, 한덕웅, 이장호, "한국판 STAXI 척도 개발," *한국심리학회지: 건강*, 제2권, 제1호, pp.60-78, 1997.
- [58] 전성희, *아동기 자녀를 둔 부모의 분노사고와 분노표현방식*, 숙명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7.
- [59] D. W. Russell, J. H. Kahn, R. Spoth, and E. M. Altmaier, "Analyzing data from experimental studies: A latent variable structural equation modeling approach," *Journal of counseling psychology*, Vol.45, No.1, pp18-29, 1998.
- [60] 서영석, "상담심리 연구에서 매개효과와 조절효과 검증," *한국심리학회지: 상담 및 심리치료*, 제22권, 제4호, pp.1147-1168, 2010.

- [61] A. Brassard, V. Darveau, K. Péloquin, Y. Lussier, and P. R. Shaver, "Childhood sexual abuse and intimate partner violence in a clinical sample of men: the mediating roles of adult attachment and anger management," *Journal of aggression, maltreatment & trauma*, Vol.23, No.7, pp.683-704, 2014.
- [62] A. E. Kazak, L. P. Barakat, K. Meeske, D. Christakis, A. T. Meadows, R. Casey, B. Penati, and M. L. Stuber, "Posttraumatic stress, family functioning, and social support in survivors of childhood leukemia and their mothers and fathers," *Journal of consulting and clinical psychology*, Vol.65, No.1, pp.120-129, 1997.

이 동 훈(Dong-Hun Lee)

정회원



- 2000년 9월 ~ 2006년 2월 : University of Florida(박사)
- 2006년 3월 ~ 2007년 8월 : 한국 청소년상담원 조교수
- 2007년 9월 ~ 2012년 2월 : 부산대학교 교육학과 교수
- 2013년 3월 ~ 현재 : 성균관대학교 교육학과 교수  
<관심분야> : 한부모 가정과 자녀, 출소자 가정, 재난 심리, 트라우마, 위기개입

저 자 소 개

이 아 름(A-Reum Lee)

준회원



- 2017년 2월 : 성균관대학교 교육학과(교육학석사)
- 2017년 2월 ~ 2017년 8월 : 성균관대학교 카운슬링센터 시간제 상담원

<관심분야> : 출소자 가정, 심리상담

김 지 윤(Ji-Yun Kim)

준회원



- 2011년 8월 : 한동대학교 상담심리전공(석사)
- 2014년 3월 ~ 2016년 8월 : 성균관대학교 교육학과(박사수료)
- 2017년 2월 ~ 현재 : 성균관대학교 카운슬링센터 전임연구원

<관심분야> : 출소자 가정, 재난심리, 트라우마 자해